

목포 제이케이중공업, 서해안권 첫 방산업체 지정

해양방산 생태계 조성·합정 MRO 산업 진출 기대 해경정비창 연계 합정 유지·보수·정비시장 ‘신호탄’

목포에 본사를 둔 조선기업이 서해안권 최초로 합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전남 조선산업의 영역이 상선 중심에서 해양방산 분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목포 소재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합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해안권 조선기업 가운데 합정 방산업체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은 그동안 상선 중심으로 형성돼 온 전남 조선산업 구조가 방산 분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목포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정비창이 출범한 가운데, 합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된다.

제이케이중공업은 2014년 설립 이후 선박 블록 제작과 선박 수리·개조, 관공정 신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성장해 왔다. 현

재 연 매출 300억원 규모의 조선기업으로 약 3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합정 분야 방산업체로 최종 지정됐다.

전남도는 해양경정비창 출범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양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 합정 정비 기능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조선소가 글로벌 합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에 합정 유지·보수·정비 산업 지원 근거도 반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합정 MRO 공

모사업에도 참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정책관은 “전남 기업이 해양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지역 조선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조선 기업이 방산과 수리조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근 제이케이중공업 대표이사는 “방산업체 지정을 계기로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정 유지·보수·정비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 삼진산업



도정질의 답변하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1일 전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목포대·순천대, 의대소재지 또 대립...통합 자칫 우려

통합 과정에서 서로 요구...뒤편이었던 갈등 부상 전남도, ‘선 통합’ 기조...지역사회 반응 ‘싸늘’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추진 중인 대학 통합이 의과대학 소재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 논의를 이어왔지만 정작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놓고 양 대학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전남 국립의대 논의가 또다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의대 소재지는 향후 대학병원 설립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 이어서 단순한 대학 시설 배치를 넘어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문제로 평가된다.

도와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분리 배치하기로 해놓고, 실제 단계에선 서로 대학본부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의대 소재지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상 대학본부가 들어서지 않는 곳이 의대 소재지가 되는 방식인데, 결국 양쪽 모두 의대를 지역에 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대 소재지 경쟁이 민감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의대 한 곳의 설치 여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학병원 설립, 의료인력 유입, 관련 산업 집적, 지역 이미지 개선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목포와 순천 두 곳 모두에 국립대 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학병원을 두 지역에 모두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끊

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양 대학 안팎에서는 의대 소재지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 대학 총장이 조판간 만나 대학본부와 의대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학 내부에서는 차라리 교육부가 실사를 통해 한 곳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기권에서도 절충안이 제시되긴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순천과 목포 중 한 곳에만 의대를 둘 경우 나머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문제가 남는다고, 국립의대 50명과 공공의대 50명으로 정원을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하나의 통합 대학 안에 사실상 성격이 다른 두 체계를 병행하는 문제여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별도 판단과 정책 결단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국내 의대 운영 체계만 봐도 이 구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다. 전남대의 대대는 화순에, 조선대의 대대는 광주 동

구에 각각 자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대학이 서로 다른 지역에 독립적인 의대를 두는 방식은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연세대의 의과대학과 원주의과대학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별도 정원과 운영체제를 갖춘 특수한 경우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한편 전남도는 여전히 선 통합 후 조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양 대학과의 회의에서도 통합 절차를 먼저 마친 뒤 대학본부와 의대 소재지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대학본부가 예산과 조직, 행정 기능 측면에서 의대 못지않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선 대학 통합부터 상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시선은 싸늘하다. 가장 첨예한 쟁점을 뒤로 미룬 채 원론만 반복하다가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의대 소재지 병행하는 문제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별도 판단과 정책 결단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모금 본격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10년간 500억원 조성 목표

전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구조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대규모 모금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총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대학병원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은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전문 의

료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구축이 오랜 과제로 제기돼 왔다.

모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금 등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부 자원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되며, 전남 의료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정기부 사업 시작을 기념해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금에 통해 10만원 이상 지정기부 후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농협안심한돈 삼겹살 800g’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4월 3일 개별 통보된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미래 의료자립의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통합은 새로운 성장 발판”

조선대서 청년들과 통합특별법 토론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11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광주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를 열어 통합특별법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지역 대학생들과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행사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강희숙 강경령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정 유지·보수·정비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 주요 특례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고 배우며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중요한 목표”라며 인재특별시·기회특별시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진 공감토크에서는 대학생·청년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대학생·청년들은 통합 이후 지역 발전 방향, 청년 일자리와 창업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기정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대학생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펼치고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서울’이 아닌 ‘인광주·전남’ 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 산림연구원, 산림R&D 공모 ‘전국 최다’

전남산림연구원이 산림청의 대형 연구개발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과제를 따내며 산림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남산림연구원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공모에서 총 4개 연구과제가 선정돼 국비 10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국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과제를 확보한 것으로, 전남 산림 연구 역량이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료 양산화 2건, 산림자원 기능성 검증 강화 2건 등이다. 연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되며 산림자원의 원료 생산, 기능성 소재 개발, 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 기 가치사슬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1면 ‘광역교통망’서 계속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특화 노선’, 전남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버스·BRT·공공택시·도서 교통 통합 운영 등도 제시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도 이날 교통·물류 인프라 획기적 개선안을 공개했다.

정전선(광주·부산) 구간 중 순천 지역의 전철화와 지하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시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여수·광양 항만과 연계한 산업물류 거점을 강화겠다는 의견이다.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남과 광주 사이의 광역 교통망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미래 의료자립의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계획에 호연역을 경유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반영하고, 전남 구간 철도를 ‘광역교통시설’로 인정받아 국가 전역 지원 등 재정적 안정장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주 원도심과 혁신도시, 광주 상무지구를 연결, 기존 승용차 대비 획기적인 통행시간 단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군 거점을 잇는 ‘호남권 순환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도 공개했으며, ‘전남·광주 광역급행버스 도입’도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열차, 고속도로 등 전반적인 교통망 개선을 구상 중이다.

광주~화순읍~화순전남대병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주 도심과 전남 동부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광역 급행 철도망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그리고 있다. 권역별 주요 산업을 잇는 도로망을 만들어 업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지자체 간 대중교통 연계 요금 단일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후보들 각각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유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